

생활한복의 이미지와 가격 평가에 관한 연구

정인희 · 조효숙* · 김선경**

금오공과대학교 전임강사 · 경원대학교 부교수* · 경원대학교 교수**

A Study on the Evaluation for Image and Price of *Saenghwal Hanbok*

Ihn-Hee Chung · Hyo-Sook Cho* · Sun-Kyung Kim**

Instructor, School of Advanced Materials & System Engineering, Kumoh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sumers' evaluation for image and price of *Saenghwal Hanbok*.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from 400 men and women living in Seoul area between August and September of 1998, and 374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factor analysis. As a result, consumers perceived *Saenghwal Hanbok* as 'comfortable' and 'individualistic' compared with western dress. *Git*(collar) and *Gorum*(ribbons) or *Maedup*(braided buttons) of *Jeokori*(jacket) were selected as having traditional image the most. 245 people(65%) answered that the general impression of *Saenghwal Hanbok* wearers was favorable. *Saenghwal Hanbok* was thought to be appropriate when priced between 30,000 and 200,000 won per suit. And the intention to continue wearing *Saenghwal Hanbok* in the future was very positive.

Key Words : 생활한복(*Saenghwal Hanbok*), 이미지(image), 가격(price), 한국적 이미지(Korean image), 전통적 이미지(traditional image), 인상(impression)

I. 서론

현재 우리 패션 업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국제 경쟁력 회복이며, 이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 대안은 바로 패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이다. 패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가격 경쟁 대열에서 벗어나 디자인과 품질로 세계 시장에서 승부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창의적인 디자인을 개발하여 세계 무대에 널리 알리고 품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산업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 본 논문은 산업디자인 기반 기술개발사업 기금에 의해 이루어졌음.

디자인 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우리 전통의 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의 문화적 배경에서 우리나라 미적 표현이야말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점적 표현이기 때문이다(이은영, 1996: 6-7). 이미 중국이나 일본, 인도 등의 민속풍 의상은 보편적인 미로서 세계 패션 시장에 수용되고 있는데, 특히 기모노의 세부 장식과 동양적 색채 감각을 서양의복 형태와 조화시켜 표현한 겐조(Kenzo)나 평면재단법과 일본의 전통적 소재를 현대적 이미지로 재현한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등 세계적인 일본 디자이너들의 자민족 복식 연구와 디자인 활동은 일본의 패션이 국제적 경쟁력을 획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김인경, 1995: 538-9; 조희래·김영인, 1996: 719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러 디자이너들이 한국적 이미지를 응용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적으로 활용된 전통 복식 및 복식미는 조선시대라는 특정 시대에 집중되어 있으며(금기숙, 1999: 80), 활용 품목의 측면에서도 치마나 저고리, 자수 등 몇 종류에 편중되고 있어,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복식으로 그 응용의 범위를 넓히고 바지나 배자, 포, 장신구 등 여러 종류의 품목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조효숙 외 9인, 1999: 13-4).

한편, 최근 사회 문화적으로 전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경향에 부응하여 그동안 외면되기만 했던 개량한복도 생활한복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전통이라는 맥락 내에서 생활한복이 존립하는 근거나 차지하는 위상 자체가 정립되지 못하여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며, 생활한복에 대한 일치된 정의도 내려지지 않고 있다.

안명숙·김은정·양숙향(1998: 96)은 생활한복이 편리하면서도 한국적인 멋을 표현해 준다는 새로운 인식으로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으나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상실한 국적없는 복식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고 하였으며, 황의숙(1995: 306-7)은 현재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생활한복을 한복으로 보기보다는 양복에 한국적인 복식 요소를 응용한 새로운 패션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생활한복이 현대인에게 전통을 재인식시

키는 옷임은 분명하며, 그 개발 여지에 따라 서양복식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 패션 디자인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시킬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전통 복식미 분석에 대한 연구와 한복 및 생활한복에 대한 소비자 조사 연구들을 살펴보고, 생활한복 착용자들의 생활한복에 대한 이미지 평가와 생활한복 가격 인식 및 향후 전망을 실증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한국적 미의식과 생활한복 이미지에 대한 향후 연구 방향 및 상품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고찰

1. 전통 복식미에 대한 연구

'한국 복식미', '전통 복식미', '한국적 디자인' 등 '한국'과 '전통'이라는 용어를 포함한 문헌연구들을 검토하여 보면, 전통 복식미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 하나는 외적 측면에서 전통 복식미의 조형적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 측면에서 복식에 내재된 미적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주로 전통 복식에 대한 고찰을 통해 외적·내적 특성이 추출되며, 이들 특성을 디자이너 작품에 적용시켜 보는 방법으로 현대 패션에서의 한국적 이미지 활용을 검증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결과로서의 한국적 복식미의 외적 특징 및 내적 가치 요소들은 <표 1>과 같다.

김영자(1991: 232-6)는 한국 복식미로 나타나고 있는 요인을 정신적인 측면에 두고 이로 인하여 표현된 특징을 추출하였는데, 예의사상에서 격식미, 단정미, 정적인 미의 복식미를 규명하였고, 체형의 강조는 특히 허리에 관심을 두고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문학작품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을 분석하여 볼 때 맵시, 고움, 단정, 태, 모양새, 호사와 장(裝)이 우리 전통복식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기호들이라고 하였다.

금기숙(1992: 30-2)은 전통복식에서 찾을 수 있는 조형적 특징을 형태, 색채, 문양, 소재, 장신구의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형태에 있어서는 풍성한 형

<표 1> 연구자별 전통 복식미에 대한 견해

연구자(연구년도)	외적(조형적) 특징	내적(미적)가치
김영자(1991)	-	예의사상: 격식미·단정미·정적미 체형의 강조: 허리에의 관심 문학작품의 표현: 맵시, 고움, 단정, 태, 모양새, 호사, 장(裝)
금기숙(1990, 1992)	형태: 풍성한 형태감과 많은 곡선의 활용 색채: 주조색인 백색과 강조색으로 나타나는 원색의 조화 문양: 자연문과 기하학문 소재: 면, 명주, 모시 등 섬세한 옷감 장신구: 복식을 완결시키고 실용적인 용도를 가지면서도 주술적인 목적을 위해 착용	자연미 인격미 벽사의 미 전통미
최세완·김민자(1993)	형태: 유연한 선의 흐름, 카프탄형 구조의 자연스러움과 풍성한 드레이프의 미 색채: 백색의 애호, 대비색 조화, 유사색 조화, 무채색 조화 소재: 곱고 정교한 소재와 거칠고 투박한 소재의 공존 장식무늬: 모티프-자연, 문자 표현방식-사실적, 양식적 배열-선적 전개, 전면 전개	자연의 사랑에 의한 순수미 상징미 절제된 비애미
김윤희(1997)	복식우선형·열린형	자연성·순수성·해학성
강희경(1998)	-	자연주의

태감과 많은 곡선을 활용하는 것, 색채에 있어서는 주조색인 백색과 강조색으로 나타나는 원색의 조화, 문양에서는 자연문과 기하학문, 소재에 있어서는 면이나 명주, 모시 등과 같이 섬세한 옷감에서 전통적 미의식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장신구는 복식을 완결시키는 목적으로 착용되는 한편, 실용적인 용도를 가지거나 주술적인 목적을 위해 착용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복식의 미적 특징 고찰로부터 추출된 미적 가치는 자연미, 인격미, 벽사의 미, 전통미로, 자연미는 자연미의 선호라는 미의식과 연결되고, 인격미는 인격미의 추구, 벽사의 미는 벽사의 성향, 전통미는 전통미의 고수라는 미적 태도와 표리관계를 이룬다고 하였다(금기숙, 1990: 81).

최세완·김민자(1993: 105-8)는 형태, 색채, 소재, 장식무늬에서 나타나는 전통미를 논의하였다.

전통복식의 형태에서는 유연한 선의 흐름, 카프탄형 구조의 자연스러움과 풍성한 드레이프의 미가, 색채에서는 백색의 애호 경향과 자연현상에서 보이는 대비색 조화, 미묘하고 섬세한 유사색 조화, 절제된 무채색 조화가 발견되었다. 소재는 곱고 정교한 소재와 거칠고 투박한 소재 모두를 찾을 수 있었고, 장식무늬에 있어, 모티프는 자연과 문자 모티프가 많았고, 그 표현방식은 사실적이거나 양식적이었으며, 배열은 선적 전개 혹은 전면 전개였다. 전통 복식미의 내적 가치로는 자연의 사랑에 의한 순수미, 상징미, 절제된 비애미를 규명하였다.

김윤희(1997: 950-4)는 전통예술과 선행 복식 연구에서 표현되는 한국적 미적 가치를 고찰하고 한국 복식의 형태적 특징과 미적 가치를 제시하였다. 한국 복식 형태의 특징은 DeLong의 형태 분류를 적용하여 볼 때, 인체를 드러내지 않는 복식우선형이며 복식

제작 과정에서나 복식 그 자체의 형태, 인체 위에 입혀졌을 때 모두 열린형이라고 하였다. 또, 한국 복식이 가지는 미적 가치를 자연성, 순수성, 해학성으로 제시하였다. 자연성은 소재의 솔직한 노출, 유연하고 부드러운 선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순수성은 기하학적 순수 도형에 의한 복식 조형이며, 해학성은 길상의 염원과 주술의 의미를 담은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색채 및 문양의 사용과 인체 형태의 과장이나 왜곡으로 인한 의외성에서 보여지는 미적 가치이다.

강희경(1998: 219)은 한국적 의상에 내재된 미학적 특징을 자연주의로 보고 있는데, 자연주의를 현대적 의상에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연 모티프의 문양을 사용하는 것과 실루엣에서 자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 그리고 자연적 질감이나 소재 활용, 자연색 사용, 핸드 메이드의 선호,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실루엣으로 표현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내적 가치로는 자연미가 한국복식미의 원천이라는 데 일치점을 보이고 있으며, 그밖에 격식미, 단정미, 정적미, 순수미, 비애미, 해학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조형적 특징들은 이런 내적 가치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전통 복식미를 보편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코드로 표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과 이에 대한 한국적 이미지 평가 및 선호도 검증 등의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2. 한복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 평가 연구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착용되고 있는 한복과 그 착용자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미지 평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먼

저, 한복에 대한 이미지 평가 연구들을 요약해 보면 <표 2>와 같다.

황춘섭(1977: 123)은 우리옷에 대한 현대인의 의식을 연구하면서, 우리옷은 조화미·균형미가 있고 디테일이 아름답게 평가되나 개성미가 없고, 활동이 매우 불편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우리옷의 착용 이유는 전체 응답의 36.8%가 우리 고유의 옷이라는 데 있었다고 하였다.

강혜원(1979: 4-7)은 서울 거주 성인 여성의 한복에 대한 태도를 조사 분석하여 한복 착용도의 시대적 변화 및 개량한복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1976년 조사 당시 700명의 응답자 중 80%는 한복이 고전적임, 우아함, 전통성, 아름다움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복을 입게 된다고 하였다. 즉, 고전적이거나 전통적인 것을 한복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본다면, 한복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정숙함, 긍지, 여성다움, 젊음 등이 한복의 긍정적 특성으로 평가되었다.

홍병숙(1988: 381)은 연구 시점 당시 예복으로 자리잡아 가던 한복과 양장의 이미지 차이를 규명하였는데, 연구 결과 한복은 우아함이나 화려함이 높게 평가되었고, 양장은 활동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즉, 한복은 양장보다 더 촌스럽고, 우아하고, 산뜻하고, 밝고, 정돈감 있고, 고급스럽고, 차분하고, 눈에 띄고, 단정하고, 매력 있고, 비활동적이고, 아름답고, 곡선적이고, 비실용적이고, 어울리고, 독특하고, 품위있고, 화려하게 평가되었다.

이경희(1997: 307-8)는 한국적 의복 이미지의 구성요인으로 우아성, 단순성, 단정성, 여성성, 여유성의 5요인을 얻었으며,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

<표 2> 한복의 이미지 평가

연구자(연구년도)	긍정적·중립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황춘섭(1977)	조화미·균형미 디테일의 아름다움	개성미가 없음 활동이 불편함
강혜원(1979)	고전적·우아함·전통성·아름다움·정숙함·긍지·여성스러움·젊음	
홍병숙(1988)	우아함·산뜻함·밝음·정돈감·고급스러움·차분함·눈에 띄고·단정함·매력·아름다움·곡선적·어울림·독특함·품위·화려함	촌스러움 비활동적 비실용적
이경희(1997)	우아성·단순성·단정성·여성성·여유성	

들 보다 한국적인 의복 이미지를 더 우아하고 단순한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미국 대학생들은 한국 대학생들에 비하여 보다 단정하고 여성스러우며 여유 있는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평가한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적 이미지의 의복 디자인들 중, 가장 '입고 싶은', '우아한', '멋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군집의 디자인 특성은 '단순한', '단정한', '깨끗한', '안정된', '여성스러운', '덜 풍성한'이었으므로, 이러한 특성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한복 착용 실태 조사와 더불어 한복의 절대적 이미지 평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양장과의 비교라든가 문화권에 따른 상대적 평가 등으로 이미지 연구 양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복의 변형된 양식들에 대한 소비자 수용과 전통한복과의 비교 평가를 위한 또다른 연구들이 있다.

강혜원·이주현(1990: 76-80)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한복이 지니는 새로운 이미지를 규명하기 위해, 정식한복과 약식한복 및 양복이 학교, 직장, 그리고 모호한 상황에서 유발하는 이미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식한복은 모호한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평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품위있다', '편안하다' 등이었다. 약식한복은 학교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평가되었는데, 이유는 '비실용적이다', '비활동적이다', '장소와 역할에 맞지 않다', '너무 눈에 띈다' 등이었다. 또한, 남녀의 정식한복과 약식한복에 관해 응답자들은 개성적, 특이함, 전통성, 민족주의, 운동권, 활동이 불편함 등의 도식을 공통적으로 형성하고 있었고, 정식한복에 대해서는 품위라는 도식도 가지고 있었다.

강혜원·고애란(1991: 226)은 장식없는 전통한복, 장식있는 전통한복, 장식없는 한복에 가까운 응용 스타일, 장식있는 한복에 가까운 응용 스타일, 양장과 한복이 같은 정도로 응용된 스타일, 양장에 가까운 한복 응용 스타일의 6개 자극물에 대한 인상 평가 연구를 하였는데, 그 결과 한복 응용 스타일이 한복보다 더 보기 좋고, 품위가 있으며, 현대적이고, 실용적이라고 지각되었다.

한복의 부위별 전통성 지각 정도에 대한 연구로는 진경옥(1997)과 채금석(1999)의 것이 있다. 진경

옥(1997: 107-10)은 한국인 352명과 외국인 81명이 각각 한복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느끼는 부위와 그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저고리와 치마의 비례, 섶, 수구, 진동, 배래, 소매, 도련희장, 치마폭, 팔동, 고름, 깃, 색동, 동정 중에 한국인은 배래(15.5%), 상하비례(12.8%), 색동(11.6%) 순으로, 외국인은 고름(22%), 색동(14.8%), 배래(9%)의 순서로 한국적 이미지를 느끼는 부위를 선택하였다. 화려, 우아, 전통성, 장식성, 고상함, 자연스러움, 구조적임, 울동적임, 풍성함 중에서 '우아하다', '전통적이다'가 한국적 이미지를 느끼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채금석(1999: 130)은 전통복의 특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로 인식되는 것은 상의의 경우 깃, 소매 배래, 동정, 고름, 섶의 순서라고 하였고, 바지의 경우 바지부리, 대넒의 결속방식, 허리 여밈, 밑위, 그리고 치마의 경우 항아리형 실루엣, 둘러 입는 방식, 허리 주름, 허리선의 위치 순서라고 하였다.

생활한복 착용자에 대한 인상을 다룬 것을 보면, 고정민·채금석(1999: 660)은 생활한복 착용자의 첫인상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특수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것으로 보인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첫인상은 좋으나 실제 착용에 대해서는 망설이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최은영(1999a: 49-50, 54)은 생활한복의 채택 영향요인으로 위험지각과 자기이미지를 연구하였다. 타인의 부정적 시각에 관한 위험 지각은 집단간 차이 없이 평균도 낮아, 생활한복을 착용했을 경우 자신을 특별하거나 보수적으로 본다는 점에 대해서 구매시 염려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생활한복 비채택자들은 '현재 연령대보다 더 나이들어 보이지 않을까'와 '남들의 눈에 너무 띄어 불편하지 않을까'의 문항이 포함된 생활한복의 단점에 관한 위험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또, 모든 응답자들은 생활한복이 품위 있고 지적인 이미지의 추구를 만족시켜 준다고 생각하나, 생활한복의 노숙한 이미지는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볼 때, 한복의 이미지는 우아함, 단정함, 품위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복의 부정적 이미지로는 촌스럽고, 노숙해 보이며, 너무 눈에 띄고, 비활동적인 것이

언급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한복 저고리의 배래나 깃 등에서 전통적 이미지를 많이 지각하고 있었고, 생활한복 착용자에 대한 이미지로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공존하고 있었다. 새롭게 개발되어 나가야 할 한국적 이미지의 현대 의상에서는 한복의 이미지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검증하여 착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패션 트렌드와 잘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 생활한복의 가격 인식과 향후 착용 의사 연구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적정 의류 가격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데, 생활한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조효숙·김선경·이희승(1998: 79)은 생활한복의 적정가격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전반적으로 6~10만원대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되었으며(57.5%), 다음으로는 11~15만원(24.4%), 5만원 이하(15.9%), 16만원 이상(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적정가격 인식 차이를 보면, 소득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는 전체적인 순위와 마찬가지로 6~10만원대가 가장 적정 가격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11~15만원이었으나,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6~10만원대 다음이 5만원 이하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저가의 가격을 적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김선경·조효숙·정인희(1999: 126-7)는 구매 가격대별 생활한복 소유현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제품의 구매가 가장 많았고,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그 다음이었다. 성별에 따라, 남자는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제품 구매자가 가장 많았으나, 여자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구매자가 가장 많았다.

최은영(1999a: 51)의 연구에서 생활한복의 채택을 미루는 소비자들은 생활한복의 가격대가 비싸다고 지각하고 있었고, 김선경·조효숙·정인희(1999: 129)의 연구에서도 가격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나, 소비자가 적절하다고 지각하는 가격과 실제 구매 가격대를 비교해보면 서로 일치하는 경향이다.

조효숙·김선경·이희승(1998: 77)이 앞으로 생활한복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64.3%)이 없다는 비율(34.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도 구매의사가 있음과 없음의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최은영(1999a: 49)의 연구에서 전체 269명의 응답자 중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은 72명이었는데, 이중 구매 의도가 있는 사람은 63명, 구매의도가 없는 사람은 9명이었고, 구매 경험은 없으나 앞으로 구매 의도가 있는 집단은 156명, 구매 경험도 없고 구매 의도도 없는 집단은 41명이었다. 즉, 구매 경험과 무관하게 구매 의도가 있는 사람은 219명으로 나타나 전체의 81.5%가 구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구매 경험자들은 87.5%로 비구매 경험자들의 79.2%보다 구매 의도가 높았다.

최은영의 다른 연구(1999b: 81)에서는 디자인 불만족과 가격 불만족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향후 생활한복 구매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소비자의 불만이 높게 제시된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 관여도가 높은 것이며, 그 불만족 요소가 해소될 때 구매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생활한복의 가격대가 높다고 지각하며, 이것이 생활한복에 대한 불만족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제품의 품질에 따라 가격대의 범위는 넓어질 수 있으므로, 가격대 구분에 대한 평가와 가격대별 적정가격을 조사함으로써 실제 생활한복의 상품화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또한, 실제 구매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했지만 많은 소비자들에게는 생활한복에 대한 잠재적 구매 욕구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구매에 이르도록 유도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 또한 필요하다.

III. 연구 방법

1. 질문지 작성

질문지의 내용은 생활한복의 이미지 평가, 생활한복에 대한 적정 가격 의식, 향후 착용 의사와 개

선 방안 및 인구통계적 문항이다. 생활한복에 대한 이미지 평가 부분에서는 생활한복 착용자에 대한 인상 평가와 그 이유, 양복과 비교한 생활한복의 이미지, 생활한복 디테일별 전통성 반영 정도를 응답하게 하였다.

생활한복 착용자에 대한 인상 평가는 '아주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다지 좋지 않다', '잘 모르겠다'의 5개 보기 중 하나를 고르게 하였으며, 각각의 응답에 대한 이유를 자유기술하게 하였다. 양복과 비교한 생활한복의 이미지 측정은 '개성적이다', '세련되었다', '단정하다', '활동적이다', '편하다', '품위있다', '우아하다', '젊어보인다'에서 양복과 비교하여 생활한복이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미지를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들 이미지들을 제시한 것은 생활한복 평가에 유용하면서도 의미전달에 있어서 불편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성 평가는 디테일별로 전통성을 느끼는 정도를 '아주 많이 느껴진다', '꽤 많이 느껴진다', '다소 느껴진다',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는데, 디테일 구분은 '저고리 깃의 곡선', '고름이나 매듭 단추로 저고리를 여미는 것', '소매 배래의 곡선', '바지 여밈을 끈으로 하는 것', '발목을 조이는 풍성한 바지 모양', '종아리를 덮는 치마의 길이', '치마의 주름', '색상', '소재'로 하여 형태상의 특징이 전통성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적정 가격 의식에서는 우선 가격대 구분 유형에 대한 의견을 답하게 하고, 고·중·저 3개의 가격대를 가정하여 각 가격대에 대한 적정 가격 범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향후 착용 의사는 '지금보다 더 자주 착용하겠다', '지금과 같은 정도로 착용하겠다', '지금보다 덜 착용하겠다', '더 이상 착용할 생각이 없다'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생활한복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자유기술하게 하였다. 인구통계적 문항에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주관적 응답법에 의한 귀속 사회경제적 계층을 포함하였다.

2. 자료 수집

자료수집은 1998년 8월에서 9월 사이, 수도권 지

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생활한복 착용 경험자를 목적표집하여,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및 자기기입법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총 374부를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질문지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서 성별, 연령집단별, 결혼여부별 분포는 남자 49.5%, 여자 50.5%; 34세 이하 58.8%, 35세 이상 41.2%; 기혼 51.1%, 미혼 48.9%였다. 학력에 있어서는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56.1%), 직업에 있어서는 학생(26.2%), 전문자유직 종사자(17.4%) 및 주부(12.0%)가 많았다. 사회경제계층은 상상·상하·중상·중중·중하·하상·하하의 7개 계층 중에서 중중계층(47.1%), 중하계층(20.9%), 중상계층(16.0%) 순으로 많이 응답되었다.

3.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SPSSWIN 8.0을 사용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와 t-검정, 그리고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생활한복의 이미지 및 전통성 평가

(1) 착용자 인상 평가 및 이유

생활한복 착용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아주 좋다고 응답한 수는 48명으로 12.8%, 좋은 편이라고 말한 응답자는 245명으로 65.5%였다. 즉, 긍정적인 대담이 78.3%였던 반면, 좋지 않다는 응답은 9명의 2.4%에 그쳐, 생활한복 착용자들은 대체로 생활한복을 착용하는 데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타인들도 생활한복을 착용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고정민·채금석(1999: 660)이 생활한복 착용자의 첫인상은 좋다고 결과를 제시한 것이나, 최은영(1999a: 50)이 생활한복 착용시 타인의 부정

적 시각에 대한 위험 지각은 낮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3> 착용자 인상 평가

인상	응답자수	백분율(%)
아주 좋다	48	12.8
좋은 편이다	245	65.5
보통이다	66	17.6
그다지 좋지 않다	9	2.4
잘 모르겠다	6	1.6
전체	374	100.0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한 인상평가를 하게 되는 이유를 자유기술 응답으로 받았는데, 앞의 결과를 반영한 이 응답들은 주로 호의적인 인상평가의 이유로 기술되었다. 응답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전통, 고유의 것이어서'가 82번 언급되었고, '착용자가 편해 보인다'가 59번, '개성있어 보인다'가 24번, '실용적으로 보인다'와 '품위있어 보인다'가 각각 18번씩 언급되었다. 또한, '여유롭고 넉넉해보인다'가 15번, '의젓하고 점잖아 보인다'가 14번 언급되었다.

'우리 전통, 고유의 것이어서'라는 응답은 황춘섭(1977: 123)이 우리옷의 대표적인 착용 이유로 '우리 고유의 옷이어서'라는 결과를 제시한 것이나 강혜원(1979: 5)의 한복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한복을 입게 되는 이유로 고전성과 전통성이 두드러졌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전통한복이든 생활한복이든 그 가장 고유한 속성은 전통성이며, 착용 이유로서도, 착용자의 긍정적인 인식에 대한 이유로서도 전통성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금기숙(1992: 30)은 전통 복식미의 형태상 특징을 풍성함과 많은 곡선의 활용이라고 하였던 바, '우리 전통, 고유의 것이어서'라는 응답이 전통성 자체를 언급한 것이라면 '실용적으로 보인다', '여유롭고 넉넉해보인다'는 응답은 전통 복식미의 형태상 특징을 언급한 내용이므로, 전통 복식미가 생활한복 착용자들의 호감을 자아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수의견이기는 하나, 부정적 인상평가에 대한 이유로는 신세대 감각에 맞지 않고 특정 집단을 연상시키며, 불편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1980년대 학생운

동가, 풍물패, 재야단체인 등을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단체복 형태로 명맥을 유지해 온(TEXJOURNAL, 1999: 284) 생활한복의 이미지가 현재까지도 잔존하여 특정집단과 관련되어 지각됨을 알 수 있었다. 강혜원·이주현(1990: 83)도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 한복의 이미지는 운동권과 개성적인 이미지라고 하였는데, 개성적인 이미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지각되는 반면에 운동권의 이미지는 특정한 고정관념을 형성하여 생활한복의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기숙(1990: 81), 최세완·김민자(1993: 107-8), 김윤희(1997: 951), 강희경(1998: 216)은 전통 복식미의 미적 가치를 자연미에서 찾고 있는데, 학생운동가나 재야단체인을 통해 전달되는 이미지는 전통적인 자연미와 부합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한복에 대한 부정적인 연상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고정민·채금석(1999: 660)의 생활한복 착용자의 첫인상에 대한 조사에서 '특수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것으로 보인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처럼 1990년대 이후에는 생활한복 산업 확장에 따라 음식점 등의 유니폼으로 생활한복 착용이 늘어나면서, 특정직업 종사자에 대한 고정관념도 더불어 생겨났다.

(2) 양복과 비교한 생활한복의 이미지 평가

'개성적이다', '세련되었다', '단정하다', '활동적이다', '편하다', '품위있다', '우아하다', '젊어보인다'의 8개 항목을 주고, 양복에 비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미지를 모두 선택하라고 요청하였다. <표 4>와 <그림 1>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편하다'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다음이 '개성적이다'였다. 이들은 100명 중 과반수 이상의 응답을 얻었으므로, 앞에서의 착용자 인상 평가 이유와 더불어 해석하여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한복의 대표적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은 편한 것과 개성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황춘섭(1977: 123)과 홍병숙(1988: 381)의 연구 결과에서 한복의 부정적 이미지로 제시된 것은 비활동성과 개성미가 없다는 점이었는데, 1990년대의 생활한복에서는 이러한 한복의 단점이 개선되어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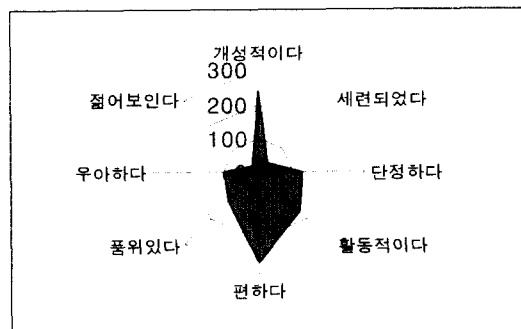
비자에게 개성적이면서도 활동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활동적이다', '단정하다', '품위있다'도 생활한복의 이미지 속성에 포함될 수 있으나, 생활한복이 세련되거나 젊어보이게 하지는 않는다는 인식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정인희·이은영(1992: 385-6)의 연구에서 세련됨과 젊음의 이미지 요인은 의복의 전반적 이미지 평가에 기여한다고 하였으므로, 앞으로 생활한복의 세련됨과 젊음에 대한 이미지는 개선되어 나가야 할 과제이다.

<표 4> 생활한복의 이미지(다중응답)

이미지	응답수	백분율(%)*
개성적이다	234	62.6
세련되었다	36	9.6
단정하다	123	32.9
활동적이다	163	43.6
편하다	265	70.9
품위있다	121	32.4
우아하다	97	25.9
젊어보인다	25	6.7
기타	7	1.9

* 100명 중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로 나타냄.



<그림 1> 생활한복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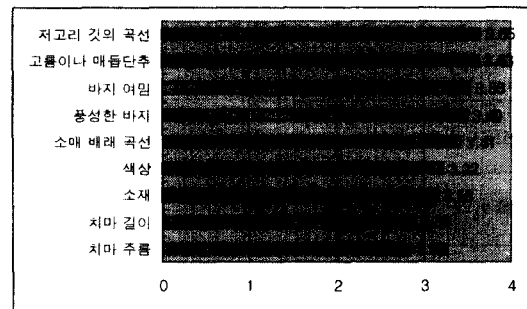
(3) 디테일별 전통적 이미지 평가

전통을 살리는 생활한복 디자인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생활한복의 각 디테일들을 제시한 후, 전통적 이미지를 느끼는 정도를 '아주 많이 느껴진다', '꽤 많이 느껴진다', '다소 느껴진다',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그림 2>에

서 보여지는 것처럼 '저고리 깃의 곡선', '고름이나 매듭단추로 저고리를 여미는 것', '바지 여밈을 끈으로 하는 것', '발목을 조이는 풍성한 바지 모양', '소매 배래의 곡선', '색상', '소재'의 순서로 전통적 이미지를 느끼는 정도가 응답되었다. 치마는 생활한복 구성 품목 중 가장 서구적 일상복과 가까운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그다지 전통적 느낌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5> 디테일별 전통적 이미지를 느끼는 정도

디테일	평균	표준편차
저고리 깃의 곡선	3.65	.88
고름이나 매듭단추로 저고리를 여미는 것	3.63	.87
바지 여밈을 끈으로 하는 것	3.53	1.00
발목을 조이는 풍성한 바지 모양	3.49	1.01
소매 배래의 곡선	3.41	.89
색상	3.22	.87
소재	3.16	.91
종아리를 덮는 치마의 길이	2.89	.96
치마의 주름	2.85	.86



<그림 2> 디테일별 전통적 이미지를 느끼는 정도

생활한복 저고리 58점에 대한 구성적 특징을 분석한 천종숙(1998: 694, 698)에 따르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생활한복의 깃모양은 조선말 이후 한복 저고리의 깃 모양으로 정착된 둥근깃 외에도 당코깃, 목판깃, 맞깃 등이고, 여밈에 있어 겹고름은 전혀 사용되지 않고 1~5개의 단추 여밈으로 대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전통한복의 요소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깃의 요소에서 생활한복 착용자들은 가장 전통미를 많이 지각하였고, 전통적인 고름의 형태는 아니지만 개화기 이후 줄곧 선보여 온 매듭과 단추에

서도 전통적 이미지를 많이 느끼고 있었다.

진경옥(1997: 109)의 한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느끼는 부위는 배래, 저고리와 치마의 상하비례, 고름, 색동 순으로 나타났고, 채금석(1999: 130)의 연구에서는 저고리 배래, 깃, 바지 부리, 대님의 결속방식, 치마의 실루엣 등으로 나타난 바 있어, 저고리의 배래, 깃 부분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 지각이 높은 데서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한복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평가하게 하였고, 본 연구는 생활한복이 연구의 대상이므로, 제시된 부위의 보기나 부위의 서술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연구 결과에 대한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한편 디자인상의 선(線)적인 요소에 비해 색상과 소재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 지각 정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이는 아직 생활한복에 사용되는 소재나 색상의 개발이 부족하여 전통적 보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통 소재나 색상 개발을 통해 생활한복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

디테일별 전통적 이미지 지각에 대한 성별 차이를 보기 위해 t-검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9개 항목 중 남녀 차이가 있었던 것은 '저고리 깃의 곡선', '고름이나 매듭단추로 저고리를 여미는 것', '소매 배래의 곡선', '치마의 주름'의 4개 항목이었는데, 남녀 공동의 품목인 저고리의 디테일에 해당하는 깃과 여밈과 소매 배래에서는 여성 응답자들이 더 전통적인 이미지를 많이 지각하였으나, 여성의 품목인 치마에 대해서 여성들은 전통적인 이미지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유의수준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는 하나, '치마의 길이'에서도 '치마의 주름'과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처럼 저고리와 치마에 대해서 남녀의 지각 차이가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디테일별 로서가 아니라 아이템 자체가 전통성 지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기대되므로, 다음으로는 9개 디테일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행하여 보았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에 의한 요인 추출과 베리맥

<표 6> 디테일별 전통적 이미지를 느끼는 정도의 성별 차이(t-검정)

디테일	성별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유의수준
저고리 깃의 곡선*	M	177	3.54	.83	-2.460	357	.014
	F	182	3.76	.91			
고름이나 매듭단추로 저고리를 여미는 것*	M	180	3.53	.84	-2.284	359	.023
	F	181	3.73	.88			
바지 여밈을 끈으로 하는 것	M	181	3.54	1.06	.093	352	.926
	F	173	3.53	.95			
발목을 조이는 풍성한 바지 모양	M	180	3.56	1.06	1.297	351	.196
	F	173	3.42	.95			
소매 배래의 곡선*	M	174	3.29	.85	-2.404	351	.017
	F	179	3.52	.91			
색상	M	176	3.21	.91	-.143	353	.886
	F	179	3.22	.83			
소재	M	172	3.20	.92	.891	342	.373
	F	172	3.12	.90			
종아리를 덮는 치마의 길이	M	151	3.00	.91	1.872	319	.062
	F	170	2.80	.99			
치마의 주름**	M	151	3.00	.85	3.002	322	.003
	F	173	2.72	.85			

*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 **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

스 회전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표 7>과 같이 저고리, 소재와 색상, 치마, 그리고 바지의 4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즉, 응답자들이 동일 아이템에 속하는 디테일들에 대해서 지각하는 전통적 이미지들은 서로 높은 상관관계에 있었던 것이 입증되었다. 아마도 이것은 보기를 제시함에 있어 디테일을 설명하면서 아이템을 언급하게 되는 데서 오는 지각자 편향에 일부 기인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디테일별 전통적 이미지 지각을 분석할 때에는 그림에 의한 자극물을 제시함으로써 이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로부터 응답자들은 저고리라는 품목에서 가장 한국적 이미지를 많이 지각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생활한복 가격 인식

(1) 가격대 구분에 대한 의견

생활한복의 용도를 고려해 볼 때, 시판 가격이 몇 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형성되는 것이 적합하겠

느냐는 질문에는 <표 8>에서와 같이 고가품, 중가품, 저가품의 3개 등급 형성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147명(39.2%)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 다음이 고가품, 중고가품, 중가품, 중저가품, 저가품의 5개 등급으로 84명(22.4%)의 응답이었으며, 그 다음이 고가품, 중가품, 중저가품, 저가품의 4개 등급으로 80명(21.3%)의 응답이었다.

즉, 생활한복의 가격 등급이 적어도 3개 정도로는 형성되어야 한다고 소비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으며, 생활한복의 가격대 범위가 넓어서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2) 가격대별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

고가품, 중가품, 저가품의 3개 등급으로 생활한복 가격대가 형성되는 경우 각 등급별로 한 벌 당 적합한 가격을 질문한 데 대한 응답은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고가품의 경우 15만원~20만원 사이의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응답이 몰린 범위는 10만원~35만원 사이였다. 그러나, 50만원 이상에 응답한 사람도 30

<표 7> 전통적 이미지를 주는 디테일들에 대한 요인분석

요 인	내 용	요인부하량	설명변량
요인1: 저고리	저고리 깃의 곡선	.789	19.878%
	소매 배래의 곡선	.780	
	고름이나 매듭단추의 여밈	.686	
요인2: 소재와 색상	소재	.878	17.974%
	색상	.865	
요인3: 치마	치마의 주름	.877	17.835%
	치마의 길이	.848	
요인4: 바지	발목을 조이는 바지 모양	.842	17.677%
	끈으로 된 바지여밈	.826	
전 체	-	-	73.363%

<표 8> 적합한 가격 등급 구분에 대한 의견

가격등급 구분	응답자수	백분율(%)
구분없이 1개 등급	8	2.2
고가품과 저가품의 2개 등급	16	4.3
고가품, 중가품, 저가품의 3개 등급	146	39.4
고가품, 중가품, 중저가품, 저가품의 4개 등급	80	21.6
고가품, 중고가품, 중가품, 저가품의 4개 등급	37	10.0
고가품, 중고가품, 중가품, 중저가품, 저가품의 5개 등급	84	22.6
전 체	371	100.0

<표 9> 가격대별 적정가격

가 격 대	고가품 가격대	중가품 가격대	저가품 가격대	전체 응답수
3만원 미만	0	0	57	57
3만원~5만원	1	16	127	144
5만원~7만원	9	57	101	167
7만원~10만원	21	100	58	179
10만원~15만원	51	121	16	188
15만원~20만원	81	37	4	122
20만원~25만원	53	21	0	74
25만원~30만원	47	13	0	60
30만원~35만원	35	2	0	37
35만원~40만원	18	0	0	18
40만원~50만원	16	0	0	16
50만원 이상	30	0	0	30

명이었다. 고가품의 경우 가격에 대한 지각 범위가 응답자 개인에 따라 큰 변이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시장은 크지 않더라도 적정 타겟만 설정된다면 고가품 시장은 더 차별화되어도 좋을 것이다.

중가품의 경우, 10만원~15만원 사이의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응답이 집중된 범위는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였다. 저가품의 경우 3만원~5만원 사이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3만원 미만에서 10만원 까지에 응답되는 경향이 높았다.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서양복의 단품들처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 생활한복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고가품·중가품·저가품의 적정 가격에 대한 응답을 합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이 선택된 가격대는 10만원~15만원대, 넓게는 3만원~20만원대라고 할 수 있다.

3. 향후 착용 의사 및 개선 의견

(1) 향후 착용 의사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생활한복 향후 착용 의사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204명, 즉 54.7%의 응답자가 지금과 같은 정도로 착용하겠다고 하였고, 152명, 즉 40.6%의 응답자는 지금보다 더 자주 착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최은영(1999a: 49)의 연구에서 생활한복 구매경

험자들이 높은 재구매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95%를 넘는 현재 생활한복 착용자들이 향후 긍정적 착용 의사를 밝힘으로써, 생활한복 시장의 수요 안정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욕구를 잘 반영하여 제품과 시장 상황을 개선하여 나갈 때에만 지속적인 구매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0> 향후 착용 의사

향후 착용 의사	응답자수	백분율(%)
지금보다 더 자주 착용하겠다	152	40.6
지금과 같은 정도로 착용하겠다	204	54.7
지금보다 덜 착용하겠다	11	2.9
더 이상 착용할 생각이 없다	6	1.6
전 체	373	100.0

(2) 개선 의견

어떠한 측면에서 생활한복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는가를 자유기술 응답으로 받았다. 개선 의견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디자인 다양화'였다(24회). 또한, 가격을 보다 저렴하게 해 줄 것(23회)을 소비자들은 요청하고 있으며, 전통을 제대로 살릴 것(21회), 디자인을 세련되게 해 줄 것(14회), 색상을 다양화시켜 줄 것(14회), 소재를 다양화시켜 줄 것(13회), 세탁과 손질을 편리하게 해 줄 것(12회) 등의 언급이 많은 편이었다.

디자인과 색상, 소재의 다양화와 세련화 및 전통

반영은 생활한복 생산에 있어 본질적이고도 지속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저렴하게 해 줄 것에 대한 요구는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절대적인 가격의 저렴화보다는 품질 대비 가격의 저렴화라고 이해할 수 있다. 실용적인 측면의 품질 향상도 중요한 개선 사항이다.

이밖에도, 홍보를 제대로 하여 대중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 연령대별로 디자인을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구매하기 쉽게 판로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 가격대를 다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 신세대 취향에 맞게 제품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서양복 패턴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좋은 개선 의견이 많이 도출되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생활한복 착용 경험자들이 생활한복에 대해 지각하는 이미지와 가격의식을 조사하고, 전망을 알아봄으로써, 한국적 이미지를 반영한 현대복식의 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생활한복의 향후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에서, 생활한복의 주된 이미지는 편하고 개성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은 저고리 깃의 곡선과 저고리의 여밈으로부터 전통적 이미지를 가장 많이 지각하고 있었다. 또, 생활한복의 가격대에 대하여 넓은 선택 범위를 갖기를 원하였고, 가장 적절하게 여기는 가격대는 3만원에서 20만원 사이였다. 그러나, 고가격대도 차별된 컨셉으로 넓게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착용의사는 매우 높았으나, 디자인·색상·소재의 다양화 및 세련화와 전통의 반영, 가격의 저렴화, 실용성의 증진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몇 가지 논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많은 전통복식미 규명을 위한 연구와 한복에 대한 이미지 평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통복식미의 형태적, 가치적 측면이 한복에 대한 이미지 평가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전통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측면의 소비자 선호 여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그러므로, 향후 생활한복을 비롯한 한

국적 이미지의 의복 연구에 있어서는 이미지 측정과 아울러 그 이미지에 전통 복식미의 내적 가치가 잘 표현되고 있는가, 또 소비자에 의해 얼마나 선호되고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더 깊게 탐구·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전통 복식미와 소비자 이미지 평가 및 소비자 선호 연구가 서로 피드백되고 상호연계를 이루며 상승 작용하여, 바람직하면서도 상품성 있는 한국적 이미지의 의복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시판되는 생활한복의 가격이 서양복에 비해 결코 비싸지 않고, 선행연구 및 본 연구 결과에서의 적정 가격 또한 소비자의 실제 구매 가격과 차이가 나지 않았다. 따라서, 생활한복 소비자들의 가격에 대한 불만은 생활한복 절대 가격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가격 구조 및 품질의 문제점이 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 개발과 소재 개발이 선행된 품질 개선을 통해서만이 생활한복의 가격이 비싸다는 소비자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의 생활한복 착용자들은 생활한복의 착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전통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의 해석과 활용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전통적인 것을 생활 속에 자리매김하기 위한 학계와 산업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계의 연구는 산업계를 통해 생활한복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한국적 디자인의 정체성을 정립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상품으로 개발하는 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원(1979). 한복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심리학적 의복연구 -서울의 성인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7(3), 1-11.
- 강혜원·고애란(1991). 여자한복의 인상형성 연구-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211-227.
- 강혜원·이주현(1990).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2)-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2), 73-84.
- 강희경(1998). 한국적 의상디자인에 표현된 자연주의에

- 관한 연구-1990년 이후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복식, 38호, 213-231.
- 고정민·채금석(1999).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구조와 선호도에 따른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5), 654-666.
 - 금기숙(1990). 조선복식미의 탐구. 복식, 14호, 167-183.
 - 금기숙(1992). 한국 전통복식미의 현대적 활용. 복식, 19호, 29-40.
 - 금기숙(1999). 패션 디자인을 위한 전통복식의 활용현황에 관한 연구. 복식, 43호, 69-81.
 - 김선경·조효숙·정인희(1999). 생활한복 착용경험자들의 소비 실태 및 의식 연구(1)- 소유 및 착용, 불만족 지각을 중심으로-. 한복문화, 2(1), 121-134.
 - 김영자(1991). 한국복식미의 연구-예의관과 표현미를 중심으로-. 복식, 16호, 231-239.
 - 김윤희(1997). 한국 복식의 미적 가치에 대한 고찰-조선 복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1(5), 946-955.
 - 김인경(1995).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1980년대 이후 한국패션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3), 536-547.
 - 안명숙·김은정·양숙향(1998). 현대 생활한복 형성의 배경과 방향. 복식, 39호, 91-98.
 - 이경희(1997). 한국적 의복 이미지와 디자인과의 관계-한국과 미국의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1(2), 302-313.
 - 이은영(1996). 미래사회의 의류학-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제의-. 한국의류학회 창립20주년 기념총회 및 춘계 학술발표회 자료, 1-11.
 - 정인희·이은영(1992). 의복 이미지의 구성요인과 평가 차원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4), 379-391.
 - 조효숙·김선경·이희승(1998). 생활한복의 구매실태 연구. 한복문화, 1(2), 67-81.
 - 조효숙 외 9인(1999). 전통 복식의 현대적 활용. 산업자원부.
 - 조희래·김영인(1996). 색동을 응용한 한국적 디자인의 개발(1)-복식디자인에의 응용-. 한국의류학회지, 20(5), 718-727.
 - 진경옥(1997). 한국의 복식미에 대한 인지도 조사연구-1980년대 이후 한복의 형태, 소재, 문양을 중심으로-. 복식, 31호, 101-118.
 - 채금석(1999). 생활한복 모형개발 연구(I). 복식, 46호, 109-131.
 - 천중숙(1998). 생활한복 저고리 디자인의 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6), 691-698.
 - 최세완·김민자(1993).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1980년대 이후 한국 디자이너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7(1), 103-117.
 - 최은영(1999a). 생활한복의 채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위험지각과 자기이미지를 중심으로-. 복식, 42호, 43-58.
 - 최은영(1999b). 생활한복의 구매 동기에 관한 연구-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복식, 45호, 71-83.
 - 홍병숙(1988). 의미분별척도법에 의한 양장과 한복의 이미지 비교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2(3), 373-382.
 - 황의숙(1995). 한국여성 전통복식의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 복식, 26호, 289-310.
 - "생활한복". TEXJOURNAL, 1999년 5월호, 273-295.
 - 황춘섭(1977). 우리나라 옷에 대한 현대인의 의식과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복식, 1호, 119-129.